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진시황과 한 무제의 꿈

지난 5월에 다산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중국인문기행 팀을 인솔하고 서안(西安)을 다녀왔다. 서안은 아테네·로마·카이로와 함께 세계 4대 고도(古都)의 하나이며, 중국의 13개 왕조가 도읍을 정한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불거리가 너무나 많았다. 그중에서 진시황릉과 한 무제의 무릉(茂陵)을 보며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진시황릉은 연인원 72만 명을 동원해서 36년간에 걸쳐 조성한 어마어마한 무덤이다. 무릉 또한 매년 국가 조세의 3분의 1을 투입해서 53년간에 걸쳐 완성한 무덤이다. 그들은 왜 이렇게 웅장한 무덤을 생전에 직접 만들었을까? 죽은 후에도 영생(永生)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들은 살아 있을 때에도 불로장생하기를

바랐다. 진시황은 서복(徐福)에게 동남 동녀 3천 명과 많은 금은보화를 주어 불사약을 구해 오라고 했다. 한 무제는 건장궁(建章宮) 안에 높이 46m의 승로반(承露盤)을 만들었다. 승로반은 '이슬을 받는 쟁반'이란 뜻으로 이른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받아 마시면 불로장생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생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진시황은 49세에 죽었고, 한 무제는 새벽이슬의 덕을 본 것인지 69세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천화를 호령하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영원히 살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좀 더 오래 살고 싶었을 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진시황이나 한 무제 같은 사람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이러한 욕망을 지니는 법인데, 그렇다면 영원히 살지는 못하더라도 오래 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장자(莊子)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화(華) 땅의 봉인(封人·문지기)이 요(堯) 임금에게, 오래 살고 부유하기를 많이 두기를 축원한다고 말하니 요임

금이 모두 사양했다. 이어서 봉인과 요임금의 문답이 이어진다. "오래 살고 부유하고 아들을 많이 두는 것은 사람이라면 모두 바라는 바인데 당신이 유독 바라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아들을 많이 두면 걱정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면 일이 많아지고, 오래 살면 욕될 일이 많아지니, 이 세 가지는 덕(德)을 기르는 방법이 아니다. 그 때문에 사양하는 것이다."

봉인이 말한 세 가지 중에서 아들을 많이 두는 것을 제외한 두 가지는 현대인도 간절히 바라는 바다. 특히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천 년 전의 요 임금은 오래 살면 욕될 일이 많아진다는 이유를 이를 사양했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까? 오래 살다 보면 암 등의 불치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치매를 앓기도 하며, 자식들을 앞세우기도 한다. 이것이 '욕될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별문제이지겠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이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려 한다. "8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 만해서 못 간다고 전하

라/9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하라/10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하라." 이 대중가요에서 보듯 현대인은 오만하기 짝이 없다.

세계 최고 인터넷 기업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는 2013년 바이오 기업 칼리코(Calico)를 세우고,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기획에 돌입했다. 칼리코는 인간의 수명을 최대 500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미 한 제약회사와 노화 연구에 15억 달러(약 1조 8000억원)를 공동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진시황과 한 무제의 꿈이 실현되려는 것일까? 그러나 100세 200세 이상의 노인이 우글거리는 사회를 생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옛날엔 60세가 되면 오래 살았다고 해서 환갑잔치를 열어 축하해 주었고 '인생 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 해서 70세까지 사는 사람도 드물었다. 이에 비하면 지금의 인간 수명은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쯤에서 수명 연장의 꿈을 접는 것이 어떨까? 이보다 더 오래 살아서 얼마나 더 '욕될 일'을 겪으려고 하는가.

NGO칼럼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만 남았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입되었다. 최근 원안위가 발표한 영광 한빛 1호 기간중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자가 원자력 출력을 잘 못 계산하여 제어봉을 조작하였고,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운영 기술 지침서상 원자로 출력 제한치가 5%가 넘으면, 즉시 원자로를 가동 중단해야 하지만, 12시간이 지나서야 발전소 가동을 정지하였다. 원자로 출력 계산 오류는 연초에 있었던 한수원 자체 점검에서도 그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제어봉의 위치 편차도 발생하였다. 이번 중간 조사 발표 내용에는 다른 핵발전소 사례와 유사한 추정만 있을 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기계적 결함은 앞으로 조사한다고 하니, 이것 또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유심히 살펴볼 문제이다.

올해 들어 한빛에서 발생한 사고와 문제들이 벌써 7건이다. 화재부터 운전원 증기 발생기 수위 조절 실패, 공극 추가 발견, 변압기 이상 신호로 인한 정지까지 한 달에 한번 꼴로 1호·2호·3호·5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 한빛 1호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 만인 최근에는 한빛 3호기 격납 건물 관통부에서 공기 누설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화재 사고, 올해 2월 격납 건물에서 44개의 공극이 추가로 확인된 이후 재가동을 위한 시험 중 다시 누설이 확인 된 것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운영 능력과 기계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영광 핵발전소는 전력(kWh)당 평균 실제 발전 비용을 말하는 '균등화 발전 비용'(LCOE)도 지금과 같은 재생 에너지 성장 속도라면 10년 안에 핵발전의 이익을 위해 굳이 핵발전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것도 20여 년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해 간다면 우리는 충분한 안전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핵발전은 더 이상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일본의 히타치와 미츠비 시중공업은 핵발전소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상승하자 더

이상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타카와 영국의 핵발전소 건설 사업을 포기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태양광 발전 신규 설비용량이 화석 연료와 핵 발전을 합한 순 설비용량 증가보다도 더 높았고, 투자액은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합한 것보다 두 배 많았다. 재생 에너지 산업 고용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kWh)당 평균 실제 발전 비용을 말하는 '균등화 발전 비용'(LCOE)도 지금과 같은 재생 에너지 성장 속도라면 10년 안에 핵발전의 이익을 위해 굳이 핵발전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것도 20여 년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해 간다면 우리는 충분한 안전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

노후하고 설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안전이 우려되는 문제들이 반복되는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해야 되는 이유가 더 확고해진 셈이다. 우리도 이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선택을 해 왔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社說

'남북 해빙' 수영대회 북한 참가로 이어지길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불투명했던 북한의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전 선언 66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아연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남다울과 기대감 속에 이번 회동을 지켜본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이러한 남북 해빙 무드가 본격적인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이 꼭 참가해 화해와 협력의 물결을 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감추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도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참가를 거듭 호소했다. 이 시장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이 하나가 돼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수영대회를 열고 싶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 측의 광주 수영대회 참가를 간절히, 그리고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회 조직위는 내일로 예정된 참가 등록 마감 이후에도 북한이 원한다면 대회 참가가 가능하도록 국제수영연맹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북 측이 개막 당일이라도 선수단을 파견한다면 참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둔 것이다. 북한은 평창 동계 올림픽 때도 막판 전격적으로 참가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를 제공한 바 있어 끝까지 참가 가능성이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이 국제 경기에 공동 진출해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약속이 광주에서 꼭 실현돼 이번 세계수영대회가 '평화의 대제전'으로 치러지길 고대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역사적 결단이 있기를.

윤리특위 새로 열어 5·18 망언 의원 징계해야

국회 윤리특위가 종료되면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깝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깝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깝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깝다.

리특위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북구갑)도 "국회 윤리특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치적 이해가 들어맞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에 나서서 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가장 급한 부분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고, 나머지 특위 연장 문제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당의 해명에 대해 충분히 그랬을 수 있으리라 이해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끝내 흐지부지 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이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리특위를 조속히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72년 2월 21일,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당시 '중공(中共)으로 불리던 적대 국가를 방문한다. 그는 출발 전 "이것은 평화를 위한 여행이다"라고 말했다. 북경에 도착한 닉슨은 영빈관에 여장을 풀 지 세 시간 반 만에 모택동 사저를 방문, 한 시간 가량 예정에 없던 정상 회담을 가졌다. 두 지도자는 역사적인 악수를 나눈 후 "진지하고 솔직한 논의"(당시 백악관 대변인 표현)를 가졌다고 했다.

다." (While there, if Chairman Kim of North Korea sees this, I would meet him at the Border/DMZ just to shake his hand and say Hello!)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G20 회의차 일본 오사카에 머물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희망 사항을 올렸다.

SNS를 통해 밝힌 미 대통령의 '깜짝 제안'은 불과 하루 뒤 실현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은 영화보다 극적이었다. 미국 대통령이 북 지도자와 손을

66년 만의 악수

20여 년 전 한국전쟁에서 서로 총구를 겨눴던 미·중 정상의 악수는 냉전시대를 탈피해 새로운 '데탕트'(détente: '완화'를 뜻하는 프랑스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때 정치적 후폭풍이 얼마나 컸던지 '닉슨 중국에 가다'(Nixon goes to China)라는 영어 관용어가 만들어 지기도 했다. 영향력 있는 인물 또는 정당이 예상치 못한 효과를 일으킬 때 쓰는 유적 표현이다.

잡고 남과 북을 가르는 판문점 콘크리트 경계석(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었다. 정전 선언이 이뤄진 지 66년 만에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참으로 역사적 순간이 연출됐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이미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지만 이번 판문점 회담은 더욱 각별하다. 이번 회동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그곳에 있는 동안 북한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

/송기동 문화2부장song@

기고

전 국민 건강 보장 30년



박충선
목포고학대 간호학과 교수

한계 구간이 정해지면 본인 부담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만, 지인은 현재까지 진료비 총액의 6.8%만 본인이 부담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8월 9일 서울 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건강 보험 하나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밝혔다.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30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강 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가족 중 중증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현 정부에서는 건강 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비급여의 급여화'였다. 미용, 성형, 리식 수술과 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선택 비 급여를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급여화할 것과 본인 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대형 병원 특진료,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급여화를 약속하였다.

'문재인 케어' 발표 후 2년이 지난 현재 선택 진료비 폐지, 상·하복부 초음파 보험 급여 적용, 상급 종합·종합 병원 2·3인실 보험 급여 적용,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도입, 뇌·뇌혈관·두경부 MRI검사 및 항방 주사 요법 보험 급여 적용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대상성 질환에 맞춰 중증 치매 환자 진료비 본인 부담률 10%로 인하, 어린이 입원 치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인하 등 건강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올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복부·흉부 MRI검사, 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에도 보험 급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한시 사업으로 진행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하여 병원비 부담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그러나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 격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 민간 의료비 실손 보험 가입 증가, 계속적인 의료 신기술 개발 등으로 건강 보험 보장률은 아

직도 60%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가중은 건강 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진료비를 건별 심사에서 기관 총량 심사로 전환하는 등 심사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실손 보험 관리 및 진료비 실태 조사를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전체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의 팽창과 고가의 의료 서비스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상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1.8배 높지만, GDP 대비 경상 의료비 비율은 7.7%로 OECD 평균 9.0%보다 낮고, 정부·의무 가입 보험 재원도 56.4%로 OECD 평균 72.5%보다 낮다. OECD 평균에 비하여 의료비는 적게 쓰면서 공격 부담은 적고 가계 직접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OECD와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도 국고 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건강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온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대 본다.